우리 성도님들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결단 하신지도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어찌하든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고 말리라는 결단을 다시금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진도가 밀리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 성경을 읽다 보면 첫 번째 넘어야 할 관문이 아마도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며 성막의 개념과 의미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막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말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더 이상 지루하거나 넘어야 할 관문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으시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넘어야 할 관문이 있다면 바로 레위기의 제사법에 관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제사법도 그 개념과 의미를 잘 모를 때에는 그저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필요한 것을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왜 읽어야 할까?' '그냥 몇 페이지 건너 뛸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레위기 제사법에 관한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들은 더 이상 동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만 그 제사법에 담겨있는 의미와 개념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복음의 의미를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이 후의 시대를 살아 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누는 5가지 제사의 목적이 있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 나누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등 4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 나누는 5가지 제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번제입니다(레1:1-17, 6:8-13). 번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 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속죄의 의미로 드린 제사입니다.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번제를 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전적인 헌신을 위해 드린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 소나 양 또는 염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이 제물들은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렸습니다. 형편이 더 어려우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이 직접 제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렸으며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전부를 번제단에서 불살라 화제로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써 불태워 드리는 화제였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신 것을 상징합니다(히9:14).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롬12:1).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레2:1-16, 6:14-23).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로써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제사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드리는 사람이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화제로 드렸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으로써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무교병은 화덕에 구운 것이나 철판에 부친 것 또는 냄비에 구운 것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소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써 불태워 드리는 화제였습니다. 소제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야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했습니다. 또한 처음 익은 곡식도 소제로 드렸는데 첫 이삭을 볶아 찧은 것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해 소제로 드렸습니다.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 등과 함께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양식의 공급자 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요6:35). 또한 모든 소제 제물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침으로써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레3:1-17, 7:11-36).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고자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거나 서원을 드리고자 할 때,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형편에 따라 암수를 구별하지 않고 소나 양, 염소를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비슷하게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번제가 제물의 전부를 태워 드린 반면 화목제는 주로 기름과 콩팥을 드렸는데,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과 콩팥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 밖에 제물의 가슴은 요제로 드린 후에 아론과 그의 자손의 몫이 되었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린 뒤에 제사장의 몫이 되었으며 그 나머지 부분은 화목제를 드린 자가 성막 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 고기를 먹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릴 때에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모두 불살라야 했습니다.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분이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롬3:25, 엡2:13, 골1:20).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레4:1-5:13, 6:25-30).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로 부지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허물이 되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렸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속죄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하였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증인이 되어야 할 때 그것을 기피하거나 또는 부정한 물체 등에 접촉하였을 때 또는 맹세한 것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 모두는 고의적으로 범하지 않은 죄 즉 고의성이 없는 죄에 대한 상황인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로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는 수송아지를, 족장은 숫염소를, 평민 중 한 사람은 암염소 또는 어린 양 암컷을 드렸습니다. 만일 범죄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드렸고 그 보다 더 가

난한 사람은 기름이나 유향을 섞지 않은 고운 가루 십 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랐으나 속죄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바깥 재를 버리는 장소인 정결한 곳에서 불살랐습니다. 또한 속죄제는 죄를 범한 사람이 속죄 제물을 드릴뿐 아니라 제사장이 그 예물의 피를 성소 앞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며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음으로 범죄한 사람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합니다(히9:28, 10:10-14).

마지막으로는 속건제입니다(레5:14-6:7, 7:1-10).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죄 그리고 부지중에 범한 허물을 사함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기본적으로 흠 없는 숫양을 제물로 드렸으며 여기에 더해 범한 물건의 5분의 1을 추가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과 콩팥은 제단 위에서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가 모두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제사이지만, 속죄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의 속죄를 위한 제사 즉 범죄 행위에 대해 '배상 할 수 없는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던 반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손해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범죄로서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속건제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고의로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지은 죄나 계획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셨습니다.

속건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사해 주셨음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생활 가운데 짓는 죄에 대한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의미를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마음으로만 회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이 있을 때는 자백하고 인정하라는 것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피해 당사자에 대한 배상이 동시에 모두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사의 목적에 따라 5가지 제사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위에 말씀 드린 5가지 제사인 번제(레1:9), 소제(레2:1-16), 화목제(레3:3), 속죄제(레5:12), 속건제(레6:17-18)가 모두 불로 태워서 드린 화제입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그 제물을 죽이고 불로 태워서 드린 것입니다.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번제단에서 높이 들었다가 앞뒤로 흔들어 드린 후에 내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제사장이 화목제(레7:30)와 속건제(레14:12)를 드릴 때, 불로 태울 것은 태워서 드리고 난 후 나머지 제물의 가슴을 흔들고 곡식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쳤습니다. 이렇게 드린 제물은 다시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레7:30).

거제는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높이 들고 아래로 내리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레7:14). 또한 이 거제는 땅의 첫 소산물이나 십일조 또는 전리품 등을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높이 들었다가 다시 선물로 받는다는 뜻으로 내리는 행동을 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로 관제라고도 불렸습니다. 전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었고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전제는 번제(출29:40-41)나 소제(레23:13), 화목제(레23:19)등을 드릴 때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서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심으로 순종하신 것을 상징합니다(요19:30).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그 제사의 의미 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동안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큰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실 수 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